

iii 대안가정

통권6호 (2004/여름. 계간) <http://www.daeanhome.org>

- 2. 특집 / APT 부모교육
- 4. 대안가정 일기 (7가정)
- 11. 대안가정 그 이후
- 12. 스케치 / 대안가정 나들이
- 13. 스케치 / 대안가정 부모교육
- 14. 상담현황 및 소식
- 15. 회비(후원) 내역 및 재정
- 16.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기

빨래단상

우리집 빨래걸이엔
우리 가족이 있다.
아기양말
오빠야 바지
언니야 치마
아빠 티셔츠
엄마 바지

뽕뽕 내리쬐는 6월의 태양 아래
웅기종기 우리 가족
행복이 넘친다.

누군가 우리 가족 빨래걸이를 구경한다면
참 '행복한 집' 이라고 느낄 거야!

지나가다 빨래걸이를 보면
멈추어 서서 미소를 짓게 된다.
나란히 마르고 있는 아기의 옷과 양말에
마음이 따스해진다.

오늘도 우리 가족 빨래걸이엔
빨래가 마른다.

(김선미 / 다혜네 대안가정 엄마)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핀/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04. 8. 15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4

APT

(Active Parenting Today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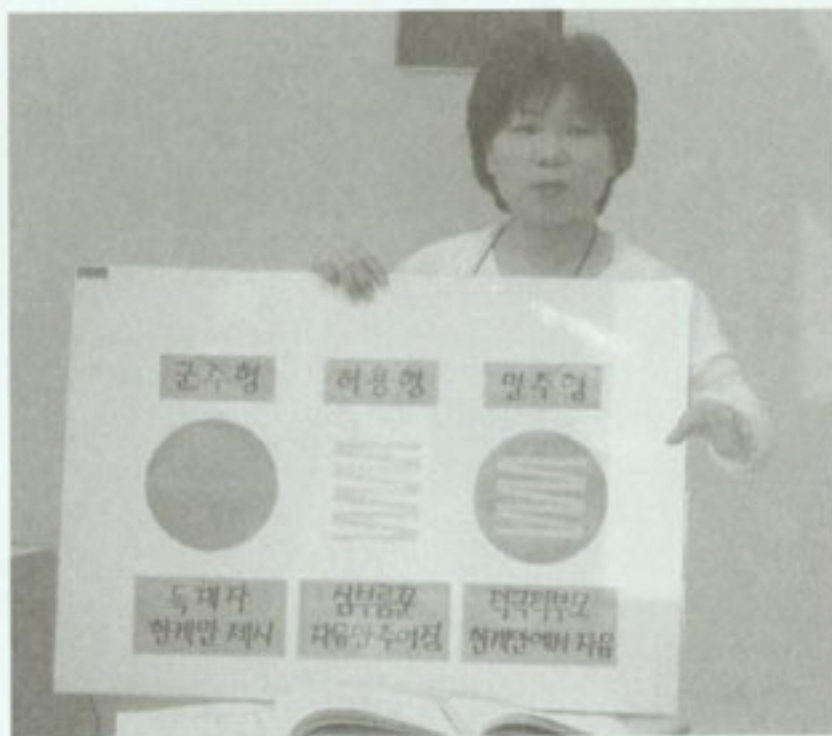
2004년 6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APT(Active Parenting Today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안가정과 입양가정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이번 부모교육은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최신설비가 갖추어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1차 : 적극적 부모란 ▲2차 : 용기와 자기 존중감 불어넣기 ▲3차 : 자녀를 이해하기 ▲4차 : 책임감을 발전시키기 ▲5차 : 협동심을 구하기 ▲6차 : 민주사회에서의 적극적 부모 라는 주제로 매주 2시간씩 함께 했습니다.

비디오에서 제시하는 문제상황을 시청한 후 문제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다시 비디오에서 제시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의 한 예를 보면서 구체적인 공감을 하게 됩니다.

또 「함께 나누기」시간을 통해 지난 한 주간 각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상황이나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고, 성공담이나 실패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참가자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친밀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갑니다.

매회 교육이 끝나면 가정에 돌아가서 실천해야 할 과제가 주어집니다. △자녀와 즐거운 시간 갖기 △격려의 편지쓰기 △한 가지 기술 가르치기 △처벌 대신 논리적 결과를 적용하기 △적극적인 나-전달법 실천하기 등. 부모님들이 숙제에 대한 아이들의 부담을 절절이 이해하게 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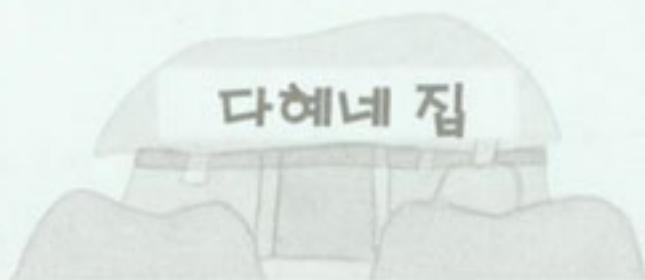
회를 거듭할수록 부모교육 기술을 실천하기 위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각 가정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상황에서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고 적절한 훈육을 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하는 동안 이미 상황은 다 지나가고 아이들은 벌써 다른 것을 하고 있을때가 많아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웠지만, 늦잠자는 아이를 깨우느라 아침마다 진을 빼거나 아이가 해야할 일을 대신해주는 일들은 사라졌습니다.

딸에게 사랑의 편지를 받고 행복해하시는 하영이네, 딸이 앞치마를 하고 엄마와 설거지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한다는 예림이네, 가족들이 함께 피자빵 만드는 것을 즐기게 됐다는 동진이네, 배구경기에 나가며 자신 없어 하는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라고 격려를 해줬다는 다혜네. 또 청일점 다혜네 대안가정 아빠가 아들에게 쓴 격려편지를 읽어주실 때는 모두 감동의 물결에 빠졌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는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APT는 Michael H. Popkin 박사가 고안한, 비디오 교재를 활용한 최초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국에서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혜네 집

2004. 5. 16 / 넷째 딸

다혜에게 엄마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친 모에게 미안(?)한 마음에 어색했는데 이틀 사이에 원래 그랬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지요. 오빠랑 언니들이 귀엽다고 좋아하고 잘 돌봐주어서 사실 제 손이 별로 필요없는 이틀이었답니다. 사람들이 다혜를 보고 누구냐고 묻지요. 우리집 넷째라고 하면 두눈을 둥그렇게 뜨고 나와 다혜를 다시 본답니다. 그리고는 금방 다혜를 안아주고 뽀뽀하고 먹여주고 난리예요. 이걸 내가 엄마인지 그냥 다 엄마인지... 그래도 모두가 사랑으로 환영해 주어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지요. 다혜는 지금 큰언니랑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아마 늦게 일어날 거예요. 피곤했어네.

2004. 5. 18 / 여섯식구 목욕하기

어제는 온 가족이 온천에 갔다. 아빠랑 오빠랑 다혜랑, 나랑 언니들이랑 셋씩 나뉘었다. 온천욕을 마치고 나오니 아빠랑 다혜는 벌써 나와 있었다. 다혜가 들어가자마자 울기 시작해서 헐레벌떡 씻고 나오기 바빴다나... 다혜는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남자 어른은 익숙치가 않은가? 다혜 옷 3벌을 사고 또 이웃에서 신발이며 옷 등을 기증받아서 다혜 옷장이 따로 있어야 될 듯 싶다. 처음부터 우리집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편안하다. 그래도 잠자리에 들 땐 혼란스러운지 먼저 와서 자지를 앓고, 안아서 침대에 눕혀야 잔다. 다혜야! 여긴 너의 집이고 이젠 다른 곳에 안 가도 괜찮으니까 맘에 드는 사람 옆에 가서 안겨서 자렴. 사랑해!!

2004. 5. 21 / 잠 좀 자자!

온천하고 광장에 나와서 이리저리 찬 밤바람에 돌아다니더니 아이들 모두가 감기가 걸렸다. 다혜는 콧물이 나고 기침을 조금 한다. 약을 먹고 밤 10까지 신나게 소리치며 춤추며(춤실력이 수준이상) 놀더니 잠자리에서 자꾸 칭얼댄다. 안고 다독여도 보고, 우유를 타서 먹여보아도 조금 먹다가 잠이 든다 싶다가 또 칭얼대고... 아이고 잠 좀 자자!

그동안 못 잔 잠 보충해야 하는데, 아빠는 아이들 방으로 도망가고... 그 뒷모습이 밉더만! 오늘도 나는 대구에 가야한다. 아예 안대랑 마스크를 챙겨서 차에서 자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젠 준비할 시간. 나도 다혜 니처럼 자고 싶다 이말씀!!

2004. 5. 27 / 옥수수심기

오늘 우리 여섯 식구가 저녁나절에 옥수수밭에 갔다. 지난번에 심은 옥수수도 오랜만에 돌아보고 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다. 다혜는 흙을 안 밟아 봤는지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흙에 세우니 발을 땅에 데지 못하고 우는 소리를 한다. 아이고 촌놈! 촌에서는 촌스럽지 않은 것이 촌스러운 것이다!! 이말씀. 옥수수를 심는 것인지 비둘기 모이를 뿌려놓은 것인지... 다혜의 솜씨로 오늘 밤에 씨앗들이 잘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내일 아침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지 않을까? 큰언니 왈 "다혜는 새를 사랑하나봐. 그래서 새 먹으라고 먹이를 뿌려놓는거 아닐까?" 그래 그럴거야. 다혜는 새도 사랑하고 그래서 옥수수를 모두 흩어놓았고, 다혜는 땅도 사랑하고 그래서 차마 밟지 못하고. 그래도 아마 옥수수가 익어서 먹을 때가 되면 제일 많이 먹을걸? 아무튼 오늘도 하루해가 지고 다혜는 꿈나라로 여행을 갔다. 굿- 나잇!



2004. 5. 30 / 엄미에게 오기

다혜는 누구에게나 잘 가고 잘 따르고 예쁜 짓을 한다. 지나가던 사람이 손을 내밀면 손을 잡고 그냥 따라간다. 내게는 빠빠이를 하고! 그럴땐 짝금 섭섭하다. 그런데 어제는 다혜가 나를 기쁘게 했다. 같이 놀던 애기 엄마가 "우리 집에 가자"며 안고 대문을 나서니 그냥 울어버리며 '엄미'를 찾는 것이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젠 잠도 잘 잔다. 깨어서 우는 일도 줄어들고, 아빠랑도 오빠랑도 언니들이랑도 덩굴고 놀다가 잘 잔다. 언니 오빠가 학원에서 돌아오면 제일 반기는 아이, 놀러가기 제일 좋아하는 아이, 웃기도 잘하고, 목소리도 크고... 언니 오빠가 예뻐해 주니까 무조건 떼를 쓰기도 하지만 엄미인 내 말은 잘 알아듣고 잘 따라준다. 나는 참 복이 많다! 요즘에 아기가 4명이 되는 집이 흔하지 않은데 4명이나 있으니! 결혼하고 아기를 4명을 낳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따라주어서 3명에서 멈추었건만 다혜로 인해 4명이 된 것이다.



2004. 4. 6 / 가을이가 병원에 다녀 왔어요

오늘은 가을이가 퇴원 후 정기 검진 받는 날이어서 병원(안과)에 갔었는데 많이 울었네요. 퇴근 후 와서 얼굴을 보니 눈 주위가 많이 부어 있어서 마음이 짝금 아프네요. 이것이 아빠가 되어 가는 과정인가 싶군요. 아무쪼록 가을이가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기를... 어서 어서 자라서 아빠랑 손잡고 놀이 공원에도 놀러 가야지! 가을이가 오늘 진료 받는다고 힘들었는지 일찍 잠이 들었네요. 고모랑 이모랑 가을이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을이랑 누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국장님이 보내주신 캐리어랑 유모차 매우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진작 감사의 글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야 짧게나마 한줄 올립니다. 가을이 얼른얼른 키워서 날씨 좋은날 국장님께 나들이 갈게요!

2004. 4. 30 / 예방접종 하던 날

어제는 가을이가 예방접종을 했어요. 몸무게도 벌써 6kg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는 미열이 있는지 별로 웃지도 않고 많이 보채는 듯하여 다시 병원에 가볼까 하고 망설이다가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열제를 먹여 보다가 다시 열이 나기 시작하면 오라는 말씀을 듣고 조금은 안심을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모로서 조카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이 들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커 주는 우리 가을이가 너무 기특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오늘은 언제 열이 났나 싶을 정도로 잘 놀고 웅아리도 잘 합니다. 하루하루 하는 행동들이 너무 신기 할 정도로 잘 크는 우리 가을이가 대견합니다. 다음에는 많이 자란 가을이의 사진도 함께 올려 볼게요.

2004. 5. 24 / 현실과 다른 사회

가을이의 가정위탁지정 문제가 거론 된지도 몇 달이 지났다. 정부에 큰 지원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뚜렷한 답이 없다 4월 중순에 가을이가 의료보호대상자에 선정이 되었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가을이는 미숙아이기 때문에 특진을 받아야 되고 (소아과, 이비

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발달클리닉)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2/3 이상이 비급여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예방접종과 수시로 열이 나는 관계로 주치의 병원인 송광익 소아과병원을 자주 찾아 많은 도움을 받는다. 고모라지만 가을이를 마냥 키우자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곤 한다. 그래서 월30~4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부업을 생각 중이다. 가을이를 보면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이 기특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가을이 아빠는 한 달 월급으로 대출이자며 여러 가지 지출을 빼고 나면 가을이에게 들어갈 양육비는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하루 빨리 모든 어린이와 우리 가을이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랄 뿐이다.



2004. 6. 13 / 보고픈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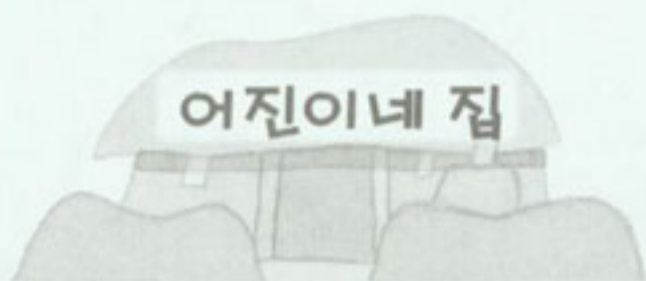
가을이를 너무 좋아한 가짜엄마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구요? 고모님하고 친분이 있어 고모님 피곤할 때 가끔 돌봐준 이모예요. 요즘 시간이 없어 보러 못가지만 무지 가을이를 좋아했거든요. 아직 미혼이지만 애기를 무지 좋아해요. 아빠는 있지만 엄마가 없어 자칭 가짜엄마라고 표현했는데 고모님 기분상하신 건 아니시겠죠...^^*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가을이가 안 본 사이에 꽤 커버렸네요. 고생 많으시겠지만 힘내시고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며...

으시겠지만 힘내시고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며...

2004. 7. 21 / 감사드립니다

이틀전에 가을이가 감기로 인해 병원에 갔다왔고, 6월말쯤에는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갔다오고는 가을이한테서 잠시도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날은 제 심장이 다 타버리는 것 같더군요. 요사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밤으로 많이 보채는 것이 외는 잘 자란답니다. 어제부터는 혼자 힘으로 뒤집기를 하네요. 뒤집고 나면 고함을 지르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보호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문을 받았답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제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격려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가을이는 7월부터 수급자와 위탁가정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을이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어진이네 집

2004. 4. 14 / 소대변 훈련

어진은 고집이 센 편이다. 아이들이 다 고집이 있기는 하지만 어진은 조금 더 센 것 같다. 이제 다음 달이면 두 돌이 된다. 충분히 소대변을 가릴 나이인데 요놈이 할 생각을 안 한다. 대변을 보는 것 같아 변기에 앉혀 놓고 용가를 시키면 안 하겠다고 뺨대고 울어서 중간에 그만 두게 되고, 지가 중간에 끊어 버리고 안 싸는 것 같더니만 드디어 어제 조금 싼 것 같기에 변칙 들어다 변기에 앉혔더니 한참을 앉아 있다가 드디어 쏘옥~ 풍당! 아이구 이쁘기도 해라! 아빠한테 변기에 누었다고 자랑하고, 누나한테도 자랑하고, 잘 했다고 식구들 모두 난리. 집에 있을 때는 기저귀를 벗겨 놓는다. 하지만 입혀 놓고 소변을 시켜 보지만 아직은 반응이 없다. 어제부터 놀이방에 바지를 7개를 보냈다. 거기서도 하지만 입히려고, 오줌도 가릴 때가 오겠지...

2004. 4. 17 / 드디어~ 소변도 가리게 되었네

우리 어진이 드디어 마침내 오줌도 변기에 쏘로록! 얼마나 예쁜지. 그동안 두어 달 오줌을 화장실 변기에도 누라 해도, 자기 의자 변기에 보게 해도, 예쁜 컵에 누여 보아도, 자일리통 껌통에 누여 보아도 볼 생각을 안 하더니, 오늘 화장실에 가서 발발침을 놓고 바지를 벗겨 놓고 누라고 했더니 세상에나 쏘로록! 아이고 미치겠네. 내 새끼~ 너무 이쁘! 오줌 누고 나서 박수~ 박수~ 저도 좋은지 씩 웃는다.

2004. 4. 28 / 아빠는 곰, 엄마는 햇님

어린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주는 특별한 행복감이 있다. 밤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어 주는데 그림책에 곰도 나오고 토끼도 나오고 너구리도 여우도 나온다. 똥똥한 곰이 나오면 우리 어진이 영낙없이 아빠라고 가리킨다. '아빠곰은 똥똥해'란 노랫말 때 문일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어디 있어?" 하면 방긋 웃는 햇님을 가리키며 엄마란다. 아이구 황송해라.

햇님은 커녕 달님 같다 소리도 한번 못 들어봤는데, 우리 어진이 엄마보고 햇님이라네... 그것도 방긋 웃는 햇님. 고마워 어진아! 야단칠 때도 있고 인상 쓸 때도 많은데 엄마를 햇님이라고 봐 줘서, 엄마보다 네가 훨씬 낫다. 그자??

2004. 5. 3. / 엄마~ 이양해 (사랑해)~

며칠 전 어느 날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나와서 머리위에 하트모양을 만들고 사랑해~ 하니까 우리 어진도 하트모양을 만들고 "이양해~" 한다. 아마 놀이방에서 배운 듯하다. 집에서는 늘 어진이 목을 껴안고 사랑해 하고 말하는데, 하트 모양을 보며 사랑해 하고 말하는 폼이 어찌나 예쁘던지. 엄마 누나 아빠 할아버지 모두 어진에게 목을 감겨 "이양해~" 소리를 들었다. 아이구 이쁜 것. 사랑해도 알고, 요즘은 걸핏하면 이양해 하면서 끌어안는다. 그래 어진아! 우리 모두 너를 이양해~ 아주 많이.

2004. 5.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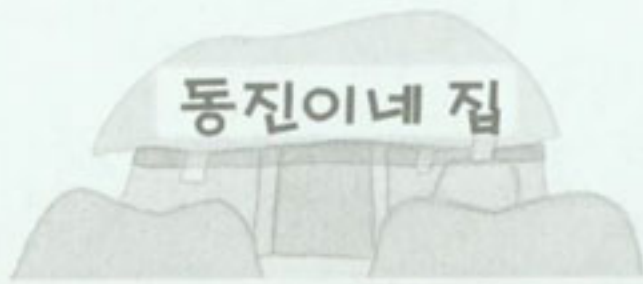
효자동이 어진이..

요즘 어진의 재롱이 한창이다. 아이가 커 가면서 가장 예쁠 때가 지금쯤인 것 같다. 말도 많이 늘어서 웬만한 표현은 다 한다. 물론 단어 위주로 간단하게 말 하지만, 테레비에서 나오는 간단한 노래도 비슷하게 흥얼거린다. 그런 것보다 더 귀여운 건 어진이 할아버지를 챙길 때이다. 지팡이를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방까지 모시고 가서 문 열어 드리고, 방에 들어가시면 문을 꼭 닫아 드리고 나온다. 그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집 식구들 어진이가 예뻐서 난리가 난다.

2004. 6. 11 / 누나는 어진을 너무 예뻐해

우리집 식구들 모두 어진을 예뻐하고 사랑하지만, 우리 딸 다혜 어진을 어찌나 예뻐하는지 어디 갔다 들어오면 어진이부터 찾는다. 밤 늦게 들어와도 어진이 자는 모습 보러 엄마방에 들어온다. 어진이 옷을 자꾸 사 오는 바람에 엄마에게 한소리 들었다. 종민이 입던 옷, 또 교회 집사님들이 보낸 옷해서 여름옷은 입고도 남는데 시장만 갔다 하면 어진이 옷을 사온다고 엄마에게 한소리 듣고 누나가 빼졌다. 자기는 용돈 줄여서 사온 건데 그런다고... 요즘은 미장원도 누나가 데리고 간다. 어진은 좋겠네. 누나가 어진이 너무 예뻐해서.





2004. 4. 11 / 아빠를 만나고 온 동진은...

동진이가 약 10개월만에 아버지를 만나고 일요일 오후에 김국장님과 유현이, 혜진이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돌아왔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결혼기념일 축하까지 받으며 국장님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아주 즐겁고 유익했지요. 누나들과 잘 어울리는 동진이를 보면서 마음이 놓이기도 했구요. 그런데 밤에 동진이가 울더군요. 묻지도 않은 아버지 이야기를 하네요. "아빠가 과자도 많이 사주고 차도 많이 탔는데 우리아빠 돈 많이 썼겠죠?" 어리지만 이제는 아버지 걱정을 하는 모습이 너무 일찍 철이 드는게 아닌가 싶네요.

**2004. 4. 18 /
치아 치료에 대해**

올해 1월말에 어금니(왼쪽아래, 안쪽에서 두번째)를 뽑았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안쪽의 어금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병원을 찾았더니, 원장님께서 양쪽 치아가 빠진 부분으로 쏠리기 전에 보조기구를 씌워서 어금니가 정상적으로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간김에 치아의 본을 뜨고 덤으로 흔들리던 앞니도 하나 뺐지요. 드디어 어제 보조기를 씌웠어요. 동진이는 침에 좀 어색한지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혀로 자꾸만 건드리고 입을 꾹꾹 하더니 이제는 적응이 됐나봅니다. 어서 빨리 어금니가 잘 나와서 세상구경을 해야 되텐데... 그리고 한남치과의 원장님과 간호사 누나들이 항상 친절하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동진이도 병원가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금니, 화이팅!!!

2004. 4. 25 / 올챙이 견학

저희집 어항에는 올챙이 세 마리가 살고 있어요. 며칠 전 어린이집에서 올챙이 견학이 있었는데 기념으로 가져왔더군요. 그리고 어제는 이모부가 쉬는 날이라 가족끼리 자연을 관찰하러 떠났지요. 운문댐 상류인 삼계리 계곡이었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상쾌한 날

씨에 물은 맑고 시원했습니다. 깨끗한 물에는 피라미들이 다니고 돌 틈에는 고디가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넓적한 바위 패인부분의 고인 물에는 올챙이들이 어찌나 많던지 애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였지요. 저희집 올챙이는 머지않아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나오겠지요. 그러면 강에 데려다 주어야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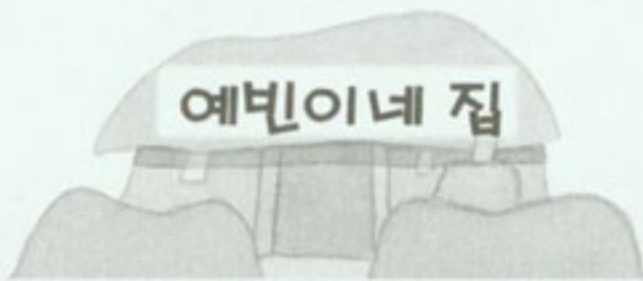
2004. 4. 28 / 봄소풍

동진이가 경주월드로 봄소풍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소풍가기 전날 잠을 안자는 겁니다. 숙제를 해야 된다고, 소풍 갔다 와서 해도 된다고 말해도 내일까지 해오겠다고 우깁니다. "그럼 얼른 하고 자자. 그래야 내일 일찍 일어나서 소풍가지" 했더니 꼬떡꼬떡. 근데 이번엔 글자가 못생기게 써졌다고 한참을 옥신각신 했지요. 밤 1시가 다되어서야 마무리 되었어요. 그래도 역시 소풍이 좋긴 좋은가 봐요. 아침에 7시가 되기도 전에 동진이가 짠! 하고 나오지 뭐니까!! 그런데 아직 한고비가 남았더군요. 숙제를 오늘 기어코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틀린 사람이 손들고 벌서기로 했습니다. 소풍 재미있었냐고 하니 신났답니다. 드디어 "숙제 몇명 가져왔어?" 물었더니 묘한 웃음과 함께 한 친구 이름을 말하더군요. 벌 새우지 못했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진짜다!" 그러는데...



**2004. 5. 25 /
이유있는(?) 고집**

학원에서 돌아온 동진이의 기분이 최상이다. 어린이집에서 시장놀이를 했는데 연필이며, 지우개, 빵, 과자를 사왔다. 빵을 먹으며 시장놀이에 대한 뒷얘기를 하느라 파편이 마구 날아온다. 이렇게 잘 놀던 동진이도 기분이 틀어질 때가 있다. 씻을 때 누나가 욕실에 먼저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안씻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 컵이 너무 멀리 놓여 있을 때-밥안먹거. 양치질을 하는데 칫솔에 물을 적게 발랐을 때-치카안해. 잠자리에서 지가 원하는 만큼 책을 안읽어줄 때-잠안자. 다 열거할순 없지만 너무 기발하고 참신한 핑계에 어이없어 헛웃음 지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서 날이 갈수록 동진이의 버티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동진이의 이유있는 고집을 말 몇 마디로 타일러 성공했을 때는 희열을 느낀다. 지금의 이러한 동진이의 고집이 성장하면서 소신과 집념으로 변하게 하여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게 도와줘야 하는데...



2004. 4. 2 / 예빈이머리 꼬부라지던 날!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빠마!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가. 뒷머리 조금 자르고 앞머리 조금 생머리로 놔두고 뽀글뽀글 짹짹 볶았다. 울고불고 난리 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 롤 말고 모자 씌울 때까지 거울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다. 얼마나 예쁘던지. 그런데 깜빡이는 이 엄마, 카메라 갖고 가는 걸 깜빡. 에고~ 아까워라 저 모습! 발만 동동 구르며 내 눈에만 담고 올 수 밖에... 미장원 아줌마, 이쁘다고 과자 사주고 퍼머 값도 안받고, 덕분에 나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뽀글! 뽀글!

2004. 4. 25 /

아빠! 노래방 가자!

길에 다니며 상가 간판을 읽고 다니는 예빈이가 며칠 전부터 아빠를 조르기 시작한다. "아빠! 노래방가자. 응? 노래방 가자구!" 깜짝 놀라서 되물었다. "어디 가자구? 응, 노래방 가자구? 노래방이 뭐하는덴 줄 알아?" 아마도 노래방 간판이 알록달록 반짝거리는데 보고 가보자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보니 노래방 안가본지 한 3년 된 것 같다. 허허허 이놈이 별소릴 다하네 하면서 아빠는, 그래 가보자 하며 일어선다. "신난다! 예빈이 신난다. 엄마! 예빈이 신난다." 하면서 폴짝폴짝 뛰다. 노래방 안으로 들어서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사방을 휘둘러본다. 한참을 분위기 파악하며 노래(곰 세마리, 얼룩 송아지, 뽀뽀뽀 등) 몇 곡 부르고 나더니 춤을 추며 난리 났다. 오랜만에 예빈이 덕에 내도 기분전환 했다. 고마워!

2004. 5. 7 / 예빈이의 저녁기도

매일 저녁 목욕하고 나면 자리 들어가는 예빈이가 시키지 않아도 잊지 않고 하는 일은 저녁기도. 안방에 들어가 예수님 앞에 앉아 가슴에 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부와 아멘!(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씻었어요. 그런데 잉잉 했어요. 또 잉잉 했어요. 음~ 엄마! 머리 아팠어요. 그런데 피아노 손들었! 했어요. 음~ 아빠 씻어요. 그런데~ 우리주 #\$\$@%(그리스

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수님! 안녕히 주무시오. 선모님!(성모님) 안녕히 주무시오. 엄마! 안녕히 주무시오. 아빠! 안녕히 주무시오. 언니! 잘자.(손을 흔들며) 예빈이 잘자라.(내가 할소리 지가하고)" 하고는 이불 속으로 쏘~옥!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목욕하고 왔어요. 하루 종일 자꾸 잉잉해서 엄마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가 피아노 앞에 가서 손들고 벌서라고 했다」는 말이다. 이렇게 저녁기도 할 때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다-아 얘기하고 잡니다. (억울하다는 애긴지 잘못했다는 애긴지.....)ㅎ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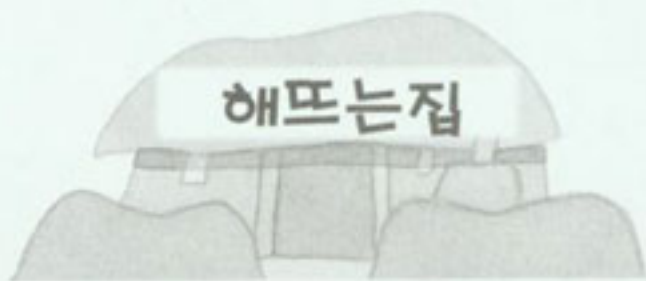
2004. 5. 19 / 어린이집 첫날.....

오늘 예빈이가 어린이집엘 갔다. 어젯밤 나는 소풍가는 아이처럼 한숨도 못잠다. 준비물이 빠진 것은 없나, 이름은 다 썼나, 보고 또 보고... 휴! 오늘 아침 다른 때보다 좀 일찍 깨워 어린이집 차를 태우니 빠이빠이! 하고 잘 간다. 잘하고 있을까 걱정 속에 하루 종일 왔다갔다. 드디어 집에 온 예빈이. 졸리운 것처럼 얌전하다. 어린이집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어땠느냐며 여쭙보니, 노래하고 찰흙 가지고 놀더니 갑자기 엄마보고 싶다며 조금 울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보다 잘 놀았다며 괜찮을 거라고, 넘 이쁘다고 말씀하신다. 조금 있으니 평소 기분을 찾아 까불기 시작. 발레를 배웠다며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며 다리를 까딱까딱 거린다. ㅎㅎㅎㅎ

2004. 5. 20 / 같이 살아야 돼

어제 내가 다니는 병원 원장님댁에서 내가 치료받을 동안 데리고 가서 놀고 오겠다며 예빈이를 데리고 갔다. "예빈이, 언니하고 잘 놀다 와라." 하자 인사까지 잘하고 갔는데 좀 있으려니 밖에서 소리가 났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니까 안들어 간다며 막 울더라. 아무리 달래도 안돼서 다시 데리고 왔단다. "예빈아! 언니하고 놀다오지 왜 울어?" 물으니, "안가! 우리 아빠하고 엄마하고 오빠하고 언니하고 예빈이하고 같이 살아야 돼! 안가! 안가!" 소리를 지른다. 모두들 당황스러워했다.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아저씨 집에 안가. 엄마!" 한다. "알았어 가지마! 네가 가기 싫으면 가지마" 하고 얘기해주니, "응! 그래! 엄마하고 예빈이하고 아빠하고 언니하고 오빠하고 같이 살아야 돼 알았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꼬옥 안아주며 "예빈이 사랑해!" 하니까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며 "엄마 사랑해!"(눈물이 주루룩!) 이를 어찌, 아직도 예빈이의 마음에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나 보다.





2004. 5. 7 / 지옥같아요!

유현이가 학원에서 돈을 잃어버리고 와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지옥같아요!” 한다. 학원에 가면서 체육복을 사야 된다고 2만원을 받아갔는데 잃어버린 것이다. 집에 들어오면서 돈을 잃어버렸다가에 처음엔 화가 나서 다그치다가 갑자기 그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원에 가는 시간이 5시 50분이고, 체육복은 학원이 시작하기 전에 사야 했다. 학원이 마치면 이미 문방구가 문을 닫았을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뭘 하느라고 체육복을 먼저 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청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돈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달아날 일도 없다. “너 학원에서 딴 짓 했지?” 하니깐 순순히 그랬다고 대답한다. “안됐네!” 하고 그만두어버렸다. 돈에 대해 유난히 민감한 유현이가 돈을 잃어버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언젠가 5천원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얼마나 억울해하고 아까워하는지... 나는 그냥 다시 유현이의 체육복을 사주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빌려줄 것이고, 유현이는 매주 5천원씩 받는 용돈을 모아서 갚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돈 잃어버렸다고 지옥같을 거까지야 있을까? 속상하고 화나는 기분은 알겠지만...

2004. 5. 19 / 혜진이의 일기장

오늘 늦잠을 자느라 아침 굶긴 사실이 학교에까지 알려지게 생겼다. 일요일 아침마다 늘어지게 늦잠을 자는 엄마 때문에 아빠가 아침을 준비하곤 했는데, 오늘은 아빠마저 늦잠을 잔 것이다. 혜진이가 배고프다고 얼마나 깨웠건만, 우리 부부 곳곳하게 각기 다른 방에서 정오가 넘도록 버텼다. 시간이 이렇게 됐나면서 남편이 식사준비를 하고, 나는 손빨래거리를 챙겨서 빨래를 시작했다.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빨래도 마무리해서 건조대에 널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혜진이가 일기장을 가져와서 보여준다. 주 스토리는 언니랑 재미있게 노는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엄마가 늦잠을 자서 아침을 굶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안그래도 얼마 전에 혜진이가 애써 그린 그림숙제를 두고 갔기에 그거 가져다주러 학교에 갔다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탄핵무효집회에도 가고 열심이시네요!” 하는 말을 들었는데, 담임선생님 아마 집안일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면서 밖으로만 요란하다고 하 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우리집은 혜진이 일기장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없다. 하루에 서 너 페이지까지 일기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일 것인가. 에구 에구... 잘 살아야 하는데... 끝이곧대로, 거짓말이나 둘러치기를 할줄 모르는 우리 혜진이 때문에 별걸 다 신경써야 한다.

2004. 5. 20 / 유현이 영어책 읽는 소리가...

며칠 전 유현이가 방에서 영어책을 읽는데 그게 내겐 노랫소리처럼 감미롭게 들렸다. 너무 신기해서 “유현아! 너 영어책 읽는 소리가 노랫소리 같다” 했더니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른다. “정말이야. 너무 듣기 좋아서 그래.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래?” 했더니 얼굴이 발갱게 상기되어서 어쩔 줄 모른다.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기분이 엄청 좋은 것 같다. 오늘 저녁식사 하면서 또 그 얘길 했더니, 진짜냐고 묻는다. “숙모가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것 봤냐?” 면서 정말 너무 듣기 좋았다고 하자 좋아서 씩 웃는다. 언제 유현이 영어책 읽는 것 한번 녹음해야겠다. 내게만 노랫소리로 들리는 걸까?

2004. 5. 23 /

혜진이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아! 드디어 이런 날이 오다니... 오늘 혜진이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며칠 전부터 혜진이의 피아노 소리가 힘이 있고 리듬이 경쾌하게 들린다 싶었다. 집에서 피아노를 치는 경우가 잘 없다보니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상당한 경지로 실력이 향상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소곡집을 보면서 피아노를 치는데 흥얼흥얼 따라 부르다가 마침내 이곡 저곡 쳐보라고 주문을 하면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신이 난 엄마의 노래소리는 점점 커져서 온 집이 찌렁찌렁 울려대는 지경까지 가고 있었다. 혜진이가 피아노를 치다가 놀라서 웃어댔고, 함께 노래를 하던 유현이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목청껏 소리내어 노래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 드디어 어설픈 엄마의 기타 반주가 아닌 혜진이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다니... 조만간 혜진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온 가족이 부르는 노래를 녹음해야겠다. 그런데 혜진이 방에서 노래하면서 안방 컴퓨터에 녹음을 해야 하니 문제다. 피아노를 옮겨야 하나, 컴퓨터를 옮겨야 하나...



2004. 4. 9 / 독서광 (난 공부가 제일 좋아요)

나눔에서 정리정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워낙 아이들이 설치고 다니는지라 치우기도 전에 다시 어지럽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요즘은 나눔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이들이 책을 끼고 삽니다. 물론 책이라는 것은 단순한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원조는 역시 호야입니다. 잠시 한 눈 판 사이 호야가 없어졌다하면 심중팔구는 대희형 방에 들어가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 장난을 칩니다.

특히 두껍고 칼라가 많이 들어간 책은 호야의 선호도 1위입니다. 책을 보느냐? 물론 아니지요. 주로 책 쌓기 놀이나 책꽂이에서 꺼내 얼마나 신속하게 다시 넣느냐 뭐 그런 놀이입니다. 호야의 대를 이어 대호의 책사랑(?)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호자 돌림의 콤플렉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호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잡식성인지라 책 뿐 아니라 리플렛, 소식지, 신문 등을 닥치는 대로 섭렵하고 다닙니다. 이제는 책의 위치와 종류를 보면 누구의 장난인지 쉽게 구별이 갑니다. 책을 찾는 일이 거의 스트레스가 되고, 도대체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못 찾을 때도 많습니다. 한참 지나 전혀 엉뚱한 곳에서 목매어 찾던 책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그때의 허탈함이란... 한 술 더 떠 이제 갓 20개월이 지난 막내 영혜가 오빠들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지를 모르는(사실 모릅니다) 꼬마 아가씨가 책을 꺼내 보며 이상한 방언(?)으로 이야기하며 혼자 웃기도 합니다. "이 에에에 이 에에에 이야 이야"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좋은 습관이기에 별로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책을 찾아야 하는 나는 오늘도 숨바꼭질을 계속합니다. "샘 내 책 못 보셨어요? 오늘 이 방에 누가 들어갔어요?"

2004. 4. 19 / 대호의 다른 모습 발견하다..

대호와 1박 2일의 외출을 했다.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씩씩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도 하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가는 동안 '권사님 안녕하세요!' 를 100번은 교육시키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다녔다. 우리집을 갈려면 기차길도 지나야 되고 논과 밭도 지나야 되는데, 와~ 대호가 이런 노래까지 다 알고 있을 줄이야. 기차를

보면 '기차길옆 오막살이' 를, 산과 들을 보면 '산에 산에는 메아리' 를, 대호 넘 똑똑하죠. 수요일에 같이 갔는데, 이렇게 능글하고 조용할 수가! 나눔에서의 대호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배 후 1시간가량의 기도회 때 또한 '예수님이 좋은걸 어떡합니까' 를 열심히 따라하는 대호.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했다. 집에 가자!" 한마디로 우리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대호 모습 상상이나 가나요?

다음날 아침부터 야구장을 노래를 불러서 야구장에 갔습니다. 대호가 야구장에 왜 왔을까요? 야구는 보지 않고 옆에 사람들 간식 먹는 것 구경하고, 전광판에 오일뱅크선전 나오면 양양(나눔에서 기르고 있는 개)이 나왔다고 펄쩍 펄쩍 뛰고... 하지만 대호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기에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나눔에서 아이를 보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나눔이 아닌 곳에서 아이들과 지내보는 것도 또 다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호가 매일 기와집만 보면 권사님 집이라고 말한다면서요. 정말 대호 똑똑하지 않나요? 우리집이 기와집인 것 어떻게 알았을까요?

2004. 4. 19 / 오민이 생일 축하..^^

오늘은 오민이 생일이 아니라...^^그냥 생일 파티를 한 날입니다. 그날 챙겨주지 못했기에 있을 때 챙겨주자는 생각에, 그래서 그냥 오민이 데리고 이리저리 와따가따 하면서 바쁘게 준비해서 달래느라고 음료수 하나 사줬는데... 그게 마지막에 오줌을 싸는 불상사를 일으킬 줄이야... 찝!

2004. 6. 17 / 공기하는게 좋아요!

며칠동안 무더웠는데 새벽부터 내린 비가 더위를 잊게 해서 좋다. 재활실 친구들과 공기를 하며 물었다. 나눔에 와서 무슨 일이 제일 기억에 남는지? 혼자 속으로 나올 대답들을 생각했다. 비행기 탄 일, 비선대에 오른 일, 노고단 등산, 온천 갔던 기억, 여름캠프 등등... 그러나 너무나 뜻밖의 답이 나왔다. "나눔에 와서 친구들이랑 공기하며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런가 보다 우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많이 기억하고 기다린다. 그런데 어쩌면 특별한 일은 그날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일상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는 건가보다.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쌍방향 협조 사례



△정규·정환이네 마지막 사진

정규와 정환이 형제가 지난 5월 18일 제주도의 대안가정으로 갔습니다.

6개월간 정규와 정환이를 돌보던 대안가정 엄마가 발목 재수술을 하게 되어 위탁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친부모가 아직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안 되어서 다른 대안가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엄마가 일하고 있는 제주도 지역의 대안가정이면 가장 좋을 듯 하여 제주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제주도에서 형제를 함께 양육해줄 대안가정을 찾았고, 아동들은 제주도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과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전에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초기상담 사례를 전달하는 차원과 달리 대안가정에서 이미 위탁양육되고 있는 사례를 공식적으로 연계 협조한 첫 사례라 의미가 큼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생겨나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쌍방향 협조가 가능하기를 희망합니다.

경북 윗마을 대안가정들

지난 5월 14일, 풍기의 목사님 가정에 다혜



△다혜네 대안가정

(18개월, 여)가 위탁되는 것을 시작으로 '경북 윗마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혜네 대안가정 일기를 보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다혜가 너무 행복해보였습니다. 다혜네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 인근의 많은 가정들이 대안가정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동욱이(18개월, 남)와 가은이(7개월, 여) 남매를 맞이한 대안가정 부모님도 먼저 위탁된 다혜를 보면서 대안가정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동욱이를 맞이하던 날, 남매를 어떻게 떼어놓겠냐며 동생 가은이도 같이 키우겠다는 의향을 밝히셔서 일주일 후 가은이도 오빠가 있는 대안가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동욱·가은이네 대안가정

대현이(5세,남)를 맞이한 대안가정도 목사님 가정입니다. 큰 딸은 서울에서, 작은 딸은 외국에서 유학중이라 대현이는 대안가정 부모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라 집에 온 큰 누나는 대현이가 예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세 가정에 4명의 위탁아동이 있고, 친자까지 합하면 아이들만 열한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합세하고자 하는 대기 대안가정이 3가정이나 있습니다. 소백산 자락에 용기종기 모여 있는 '경북 윗마을 대안가정'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온 누리에 가득 퍼지길 기대합니다.



△대현이네 대안가정

대안가정 가족들의 경주나들이



2004년 5월 26일(수) 경주 보문단지로 대안가정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동진이네, 예빈이네, 태호네, 해뜨는집, 그리고 이수형 이사장님 가족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경주에 도착하자마자 인근 식당에서 맛있는 소갈비를 먹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사무실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던 예빈이도 점심을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엄마가 마시던 맥주를 한 모금 뺏어 마시더니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춥니다. 점심을 먹고 아이들은 보문단지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신나는 오후를 보냈습니다. 어른들은 시원한 나무그늘아래 돛자리를 펴고 둘러앉아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진 호수를 바라보며 일상에서 벗어난 여유로움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국장님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깔깔깔!!! 모두들 어안이 병병해서 보니, 덩치가 엄청

큰 아저씨가 쪼그만 전동오토바이를 타고 '쌩~' 지나갑니다. 80Kg은 족히 되어 보이는 거구의 남자가 아기 돼지를 타고 있는 형국이라 모두들 따라 웃었지요. 그런데 기괴한 모양의 오토바이족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그걸 보고 웃음을 그치지 못해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된 국장님의 안쓰런 모습이라니...

결국 우리도 자전거를 탔습니다. 동진이 이모부님은 앞자리에 동진이를 태우고 달리고, 이수형 이사장님은 부부가 함께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은 킥보드를 타고... 태호고모님은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 하셨지만, 타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좀 촌스럽긴 하지만 단체사진도 촬영했습니다. 다음 자조모임에는 더 많은 대안가정 가족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가정 부모교육

2004년 5월 12일(수) 오전 10시, 대안가정 운동본부 1층 교육실에서 대안가정 부모님과 예비 대안가정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대안가정 부모교육이 있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 ▲대안가정 사례소개 ▲APT 부모교육 프로그램 소개 ▲대안가정운동본부 소개의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교육이 끝난 후 광어미역국, 고등어 정식, 초밥 등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

면서 대안가정 부모님들의 경험을 나누고, 친목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간고등어 구이를 먹다가 이야기가 제주도 고등어로 흘러서 제주도 간 고등어 구입을 위한 긴급 계모임을 만드셨습니다. 그 모임에 동참하신 국장님 덕분에 한동안 상근자들도 맛있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부모교육에서는 어떤 모임이 만들어질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 현황 및 소식

□ 상담내용별 현황

상담 내용 월	아동위탁상담		대안가정상담		지원상담			이동- 친부모 만남	기타	계	신규 신청 가정	신규 의뢰 이동
	위탁 의뢰 상담	친부모 상담	대안 가정 신청	양육 상담	행정	주치의	타기관 연계					
1월	26	25	26	20	5	1	9	2	8	122	19	21
2월	28	4	43	22	7	-	16	-	2	122	25	15
3월	18	5	18	11	8	-	6	1	4	71	15	13
4월	31	9	17	13	9	-	17	1	7	104	11	15
5월	35	11	29	20	9	1	13	-	7	125	12	20
6월	36	9	20	4	11	1	17	-	5	103	8	6
분기계	174	63	153	90	49	3	78	4	33	647	90	90

□ 상담유형별 현황

월	전화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기타상담	계
1월	96	14	12	-	-	122
2월	98	11	6	7	-	122
3월	53	12	4	2	-	71
4월	90	9	3	2	-	104
5월	108	12	4	1	-	125
6월	83	6	6	7	1	103
분기계	528	64	35	19	1	647

■ 본부 소식

• 국무총리표창 수상

제82회 어린이날을 맞아 김명희 사무국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동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대안가정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대안가정 나들이

5월 26일 대안가정 가족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초록빛 찬란한 자연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가족나들이는 어른 9명, 아이들 6명으로 총 15명이 함께 했습니다.

• APT(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실시

6월 1일부터 6주간동안 대한사회복지회 강당에서 대안가정과 입양가정 부모님을 대상으로 APT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 직원 MT

6월 12~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상근자들과 함께 지리산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속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

습니다.

• 상반기 정기이사회 개최

7월 15일 상반기 정기이사회가 대안가정운동본부 1층 교육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상반기 사업보고와 재정보고,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아이들 소식

• 다혜(18월,여)가 대안가정을 만났습니다.

5월 14일 다혜가 대안가정으로 왔습니다. 다혜를 맞이하기로 한 대안가정은 목회자 가정으로, 오랜 기다림끝에 다혜와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다혜네 대안가정으로 인해 인근에 많은 가정이 대안가정으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 정규와 정환이가 제주도 대안가정으로 ...

5월 18일 정규·정환이가 제주도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엄마가 있는 제주도의 대안가정으로 왔습니다. 제주도의 대안가정은 바다가 인근 지역에 있어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규야! 정환야! 밝고 씩씩하게 자라라~

• 동욱(18월,남) 가은(7월,여) 남매가 한 가정에 위탁되었습니다.

6월 23일 동욱이가, 일주일 뒤 6월 30일 가은이가 대안가정으로 왔습니다. 대안가정에 친자가 셋인데 동욱이와 가은이까지 합치면... 애 다섯에 어른 둘이라... 엄청납니다.

• 대현(4세,남)이 대안가정을 찾았습니다.

8월 3일 대현이가 대안가정을 찾았습니다. 외국과 서울에 유학중인 딸 둘을 둔 목회자 가정입니다. 대안가정 엄마와 대현이가 어찌나 닮았는지...

■ 외부행사

• 아동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5월 1일 '전국 아동복지의 도전과 평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 21회 한국아동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 김명희 사무국장과 정민경 상담원이 참가하였습니다.

• 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5월 18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 김명희 사무국장과 정민경 상담원이 참가하였습니다.

■ 2/4분기 회비 및 후원 내역 (2004년 4월 ~ 6월)

이사회비		김하수 30,000	이원삼 30,000
김규원 90,000	김혜경, 양덕근 60,000	이유미 15,000	이윤근 300,000
송광익 150,000	김현희 30,000	이윤재 30,000	이일영 10,000
우극현 90,000	김호근 15,000	이재성 60,000	이재은 15,000
은재식 90,000	김휘동 30,000	이종미 20,000	이지은 20,000
이수형 600,000	나눔회 60,000	이창훈 60,000	이창규 10,000
이왕욱 90,000	동진산업 60,000	이춘희 30,000	이현숙 30,000
이태원 150,000	문우경 30,000	이혜영 30,000	이혜진 15,000
정영숙 90,000	박기호 60,000	이호용 60,000	이효섭 15,000
	박대산 30,000	이효순 30,000	이효순 30,000
	박문욱 30,000	이호정 15,000	임아정 15,000
	박미경 20,000	임영진 15,000	임영진 15,000
	박성천 30,000	장경은 30,000	장경철 30,000
	박소형 50,000	장경철 30,000	장병화 30,000
	박신연 30,000	장호덕 30,000	장호덕 30,000
	박연금 30,000	정경란 40,000	정미옥 60,000
	박옥란 30,000	정민경 20,000	정용성 30,000
	박인주 60,000	정은주 10,000	정희우 15,000
	박종화 20,000	조운주 90,000	조현정 15,000
	배성훈 30,000	최경호 30,000	최봉진 15,000
	배창환 10,000	최상근 30,000	최상근 30,000
	백기웅 20,000	채승욱 30,000	채승욱 30,000
	백석환 20,000	하정욱 40,000	하정욱 40,000
	빈은선 60,000	한미경 20,000	한미경 20,000
	신은정 30,000	한은희 30,000	한국케이블TV 150,000
	심진완 30,000	허유희 30,000	허유희 30,000
	심형순 15,000	홍동표 30,000	홍동표 30,000
	서숙 30,000	TCN대구방송 150,000	TCN대구방송 150,000
	손성라 30,000		
	송규식 10,000		
	송계무 30,000		
	안의진 90,000		
	안이정선 30,000		
	안춘옥 15,000		
	양정희 30,000		
	오길수 30,000		
	오은환 60,000		
	오찬현 30,000		
	유순정 15,000		
	우연조 20,000		
	우연경 30,000		
	유은주 10,000		
	유호상 30,000		
	은창숙 20,000		
	이건호 30,000		
	이금련 10,000		
	이다연 30,000		
	이문기 20,000		
	이미선 30,000		
	이미숙 30,000		
	이병호 15,000		
	이상유 10,000		
	이상훈 30,000		
	이성희 30,000		
	이순임 20,000		
	이신자 30,000		
	이영찬 15,000		
	이영화 60,000		
	이영희 30,000		
	이옥화 30,000		

■ 2/4분기 재정보고

세입		세출	
관항	목	관항	목
회비	7,025,000	사무비	7,332,550
회비	7,025,000	인건비	6,017,980
이사회비	1,350,000	급여	5,350,000
정회원회비	545,000	제수당	350,000
후원회원회비	5,130,000	보험부담금	317,980
후원금	1,773,000	업무추진비	100,800
후원금	1,773,000	직책보조비	100,800
일반후원금	1,196,000	운영비	1,213,770
특별후원금	577,000	여비	268,300
잡수입	2,238	수용비	260,390
잡수입	2,238	공공요금	508,490
예금이자	2,238	차량비	104,650
		잡비	71,940
		사업비	3,092,400
		일반사업비	3,092,400
		상담사업	187,250
		교육사업비	553,510
		대안가정지원	1,709,780
		출판홍보사업	641,860
총계	8,800,238	총계	10,424,950
1/4분기 이월금	10,634,142	잔액	9,009,430
합계	19,434,380	합계	19,434,380

◆ 회비 및 후원 관련 안내

- 대안가정운동본부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로로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금융결제원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실제 입금하신 날짜와 차이가 있습니다. (약 5일 소요)
- 회비 및 후원금은 가능한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대구은행 계좌가 있으신 경우, 계좌를 알려주시면 사무국에서 자동이체 신청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희망의러브하우스」에서 베란다 난간 공사 비용과 부엌 천정 판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 회원카페 개설-

대안가정운동본부 회원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자체 운영되는 독자적인 카페입니다. 현재 주제별로 6개의 카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자료들이 미흡하지만 회원들이 직접 꾸려가는 카페만큼 유익한 장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 ❖ APT(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 운영자 : 김명희
- ❖ 가족기행(문화유적을 찾아서) - 운영자 : 이태원
- ❖ 정민경 상담원의 미주알 고주알 - 운영자 : 정민경
- ❖ 복지(삶에 대한 존중, 그리고 권리) - 운영자 : 김구
- ❖ 대안가정운동본부 이사회 - 운영자 : 이수형
- ❖ 경북 윗마을 대안가정 - 운영자 : 배순균

* 카페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하고, 개별카페에도 카페가입을 해야 합니다. 카페 운영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 053-628-2592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기-



안녕하세요?

저는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를 하고 있는 대학생 과
연정입니다.

심리학 전공으로 사회복지로 부전공으로 공부하면서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아
갈수록 매번 나의 부족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년이 올라가고 4
학년이 되면서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고, 단지 책에
나오는 이론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부딪히고 눈으로 보고 느
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처음의 그 결심대로 사람과 사람
안에서의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과 부족한 경험이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도.... 사회복지에서의 복지가 무엇인지도...' 작은 것 하나도 가슴에 새기려 노력하
고 있습니다.

아직은 말하기보단 듣는 것이 많고, 일을 해결하기 보단 지켜보는 것이 많지만 분명 복학을
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 뒤에, 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발을 내딛은 후에는 지금 대안가
정운동본부를 통해 얻은 이 경험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연수기간동안에도 국장님과 훌륭한 선생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
께 하는 멋진 자원활동가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안내-

꼭 대안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공감하되 당장 실천할 수 없는 분들은 대안가
정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
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은행 : 068-05-005600-9

농협 : 718-01-176941

국민은행 : 602-01-0688-119

조흥은행 : 801-01-276520

(대구은행의 경우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사무실
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타은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 약도



버스노선 : 일반 434, 603, 616, 623, 650, 750,
808, 836, 906
좌석 306, 600, 608